

현대 일본 학교문법의 성립 과정 고찰*

- 품사명과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

윤영민**

< Abstract >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contemporary Japanese school grammar:

Focusing on the part-of-speech name and classification syst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linguistic negotiation relationship with the Japanese grammar book, which is found in the systematization of modern Korean grammar. First of all, the part of speech which appeared in the modern Japanese grammar book is explored. Focusing on the name and classification system, this paper explor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ontemporary Japanese school grammar.

Japanese grammar education has been classified as "colloquialism method" and "literal grammar law" before the full-fledged pronunciation movement of the 1910s emerged since the school system was released in 1872. In addition to this, Hashimoto's grammatical point of view is being sought for an eclectic position of "nationalism" and "Western studies" established by Fumihiko Otsuki in the 1890s. Such a viewpoint has been publicized through Matsushita, Yamada and Tokieda who led contemporary Japanese grammar.

This review focuses on Japanese grammar books published from the 19th century to the 20th century, such as the Meiji, Taisho and Showa periods, and observed the flow of part of speech and classification of Japanese. And I explore how this grammar book affected the establishment of Japanese school grammar. As a result, the part-of-speech classification form of Japanese school grammar has appeared since the 1700's, and the original form was presented by Hashimoto while the viewpoints of "體·用" and "言·辭" were compatible. However, it was found that early concepts and forms of Hashimoto's part-of-speech classification system can be already confirmed by Okakura Yoshizaburo's 1891 "New Japanese Bibliography" which is a so-called eclectic grammar book.

Field : Japanese History

Keywords : Japanese grammar, Japanese school grammar, Individual part-of-speech name, Part of speech system, Eclectic grammar

1. 머리말

본고는 현대 한국어 문법의 체계화 과정 속에서 산견되는 일본어 문법서와의 언어적 교섭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 가운데 하나로 우선 근현대기 일본어 문법서에 나타난 품사명과 분류 체계에 착목하여 현대 일본 학교문법의 성립 과정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 연구는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27).

** 연세대학교 HK연구교수, 일본어사

주지와 같이 학교문법(school grammar)은 언어를 타당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며 언어 현상의 규칙화에 따라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측면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한국 학교문법은 1895년 소학교 교칙대강(小學校 校則大綱)의 공포와 함께 소학교 고등과에 정식 교과과목으로 국어문법이 채택된 것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유길준, 주시경, 김규식, 김희상 등에 의해 한국어 문법서가 저술, 간행되었다. 이후 1905년 을사늑약에 따른 국권피탈로 인하여 중단된 한국어 문법교육은 1922년 학제 개정을 계기로 조선어과가 폐지되는 1938년까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으로 ‘표준어’의 개념이 마련되었으며, 이듬해 1934년 최현배의 『중등조선말본』은 한글 맞춤법 통일을 적용한 최초의 문법서이다. 을사늑약 이전의 학교문법에서 조사와 어미를 개별품사로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조사만을 독립된 품사로서 인정하고 어미를 부속성분으로 규정하며 현대 학교문법의 기틀과 근간을 마련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본 학교문법은 ‘名詞, 動詞, 形容詞, 形容動詞, 副詞, 連體詞, 感動詞, 接續詞, 助詞, 助動詞’의 10품사 기반이지만, ‘名詞’와 ‘代名詞’를 분리하여 11종으로 분류하는 관점도 인정되고 있다. ‘문부성문법’, ‘교과문법’ 외에 ‘하시모토(橋本)문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하시모토 신키치(橋本進吉, 이하 橋本)의 영향 위에 확립되어있다.

그러나 일본의 문법교육은 1872년 학제 공포 이후 1910년대 본격적인 언문일치운동이 대두¹⁾되기 전부터 ‘국어문법’과 ‘문어문법’으로서 다양한 문법서를 통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더하여 橋本の 문법관은 1890년대 오쓰키 후미히코(大槻文彦, 이하 大槻)가 견지한 국학(國學)과 양학(洋學)의 절충적 입장이 모색 되어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은 이후 현대 일본 문법을 이끌었던 ‘마쓰시타(松下)문법’, ‘야마다(山田)문법’, ‘도키에다(時枝)문법’에서도 여전히 공유, 발전되어온 것이다.

이에 이번 고찰은 메이지(明治, 이하 明治)기를 포함하여 다이쇼(大正, 이하 大正)기와 쇼와(昭和, 이하 昭和)기에 간행된 일본 문법서를 조사 범위에 넣어,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일본어 품사명과 분류 체계의 흐름을 정리해 보는 동시에 이들 문법서가 일본 학교문법의 확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2. 조사자료

앞서 기술하였으나 현대 일본 학교문법은 ‘橋本文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橋本の 문법관 역시 다양한 이론과 체계 하에 수립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본고에서는 ‘橋本文법’과 기존 일본 문법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근현대 한국어 문법 형성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明治부터 大正, 昭和기에 간행된 대표적인 일본 문법서를 선정, 조사를 행하였다. ‘대표적’의 기준은 한국과 일본의 국어학사에서 자료적 의의와 국어 체계의 확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자주 언급, 연구된 자료 총 19종을 참조하였으며, 자료 목록은 아래 <표1>에 정리하였다.

1) 1866년 마에지마 히소카(前島 密)가 쓴 『漢字御廢止之儀』에서 이미 입말과 글말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일본 국어학사에서 ‘言文一致(げんぶんいっち)’라는 표현은 모즈메 다카미(物集高見)가 1886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1〉 한일 양국 국어학사 참고 자료 19종 목록

No.	著者(年度)	書名
(1)	강복수(1979)	『國語文法史研究』
(2)	김민수·하동호·고영근(2008)	『歷代韓國文法大系』
(3)	고영근·성광수·심재기·홍종선(1992)	『國語學研究百年史IV』
(4)	고영근(1995)	『최현배의학문과사상』
(5)	김석득外(1991)	『東方學志』
(6)	김석득(2000)	『외솔최현배학문과사상』
(7)	김민수(1978)	『初期國語文法과日本洋學』
(8)	외솔회(1994·2000)	『나라사랑』
(9)	金水敏·高山善行·衣畑知秀·岡崎友子(2011)	『文法史』
(10)	國語学会(1980)	『國語学大辞典』
(11)	斉木美知世·鷲尾龍一(2012)	『日本文法の系譜学 國語学史と言語学史の接点』
(12)	佐藤喜代治(編)(1977)	『語学研究事典』
(13)	山東功(2002)	『明治前期日本文典』
(14)	猿田知之(1993)	『日本言語思想史』
(15)	徳田政信(1983)	『近代文法図説』
(16)	仁田義雄(2005)	『ある近代日本文法研究史』
(17)	服部四郎·大野晋·阪倉篤義·松村明(編)(1979)	『日本の言語(第四)-文法(2)』
(18)	松村明(編)(1971)	『日本文法大辞典』
(19)	馬淵和夫·出雲朝子(2010)	『国語学史-日本人の言語研究の歴史-』

윤영민·서상규(2016)를 통하여 자세하게 소개한 바 있으나, 〈근현대 한국어 문법 형성사 데이터베이스〉는 근현대기 한일 양국어의 언어적 諸교섭 양상과 언어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대조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에 착수하였다. 180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19, 20 세기에 걸쳐 집필, 간행된 한일 양국어 문법서를 수집, 입수, 가공하여 DB화하였으며, 2017년 6월 현재 1차 작성을 마친 143편에 대하여 검색과 편집 및 사용자의 2차 활용이 용이하도록 텍스트로 변환하는 가공을 시도 중에 있다.

이번에는 明治기(1868-1912) 문법서 25종, 비교적 시기가 짧았던 大正기(1912-1926) 자료 3종, 한국어 해방을 맞이하는 1945년까지의 昭和기(1926-1989) 자료 9종, 총 37종의 일본 문법서를 분석해 보았다. 〈표 2〉는 이에 대한 정리이다.

〈표2〉 분석 조사 자료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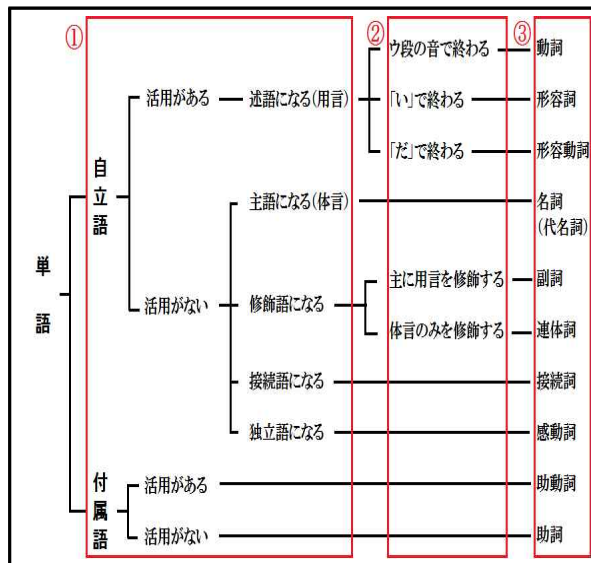
No.	年度	著者	書名	DB順番 ²⁾
(1)	1873	구로카와 마요리(黒川真頼)	皇國文典初學	05
(2)	1874	다나카 요시카도(田中義廉)	小學日本文典	06
(3)	1876	나카네 기요시(中根 淑)	日本文典	07
(4)	1876	나카네 기요시(中根 淑)	日本小文典	08
(5)	1877	다나카 요시카도(田中義廉)	日本小文典	09
(6)	1877	사토미 다다시(里見 義)	雅俗文法	10
(7)	1878	모즈메 다카미(物集高見)	初學日本文典	11
(8)	1885	곤다 나오키(権田直助)	語学自在	12
(9)	1887	바실 홀 체임벌린(Basil Hall Chamberlain)	日本小文典	13
(10)	1888	바실 홀 체임벌린(Basil Hall Chamberlain)	日本口語文典	14
(11)	1889-1890	오쓰키 후미히코(大槻文彦)	語法指南 ³⁾	15, 16, 17
(12)	1891	다카쓰 구와사부로(高津鐵三郎)	日本中文典	18
(13)	1891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	日本新文典	추가
(14)	1897	오쓰키 후미히코(大槻文彦)	廣日本文典	19
(15)	1897	오쓰키 후미히코(大槻文彦)	廣日本文典別記	20
(16)	1898	미쓰치 주조(三土忠造)	中等國文典	21
(17)	1901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	新撰日本文典	22
(18)	1901	마쓰시타 다이자부로(松下大三郎)	日本俗語文典	23
(19)	1901	마쓰다이러 엔지로(松平円次郎)	新式日本文典初步	24
(20)	1902	아마다 요시오(山田孝雄)	日本文法論上卷	—
(21)	1903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	日本文法論	26
(22)	1907	오카자와 쇼지로(岡澤鉦次郎)	新式日本文典原理	27
(23)	1907	후쿠이 규조(福井久藏)	日本文法史	—
(24)	1908	아마다 요시오(山田孝雄)	日本文法論	29
(25)	1908	미쓰야 시게마쓰(三矢重松)	高等日本文法	30
(26)	1922	아마다 요시오(山田孝雄)	日本口語法講義	31
(27)	1922	아마다 요시오(山田孝雄)	日本文法講義	32
(28)	1924	마쓰시타 다이자부로(松下大三郎)	標準日本文法	33
(29)	1928	마쓰시타 다이자부로(松下大三郎)	改選標準日本文法	34
(30)	1930	마쓰시타 다이자부로(松下大三郎)	標準日本口語法	35
(31)	1932	도키에다 모토키(時枝誠記)	國語學史	—
(32)	1934	하시모토 신키치(橋本進吉)	國語法要說	37
(33)	1935	하시모토 신키치(橋本進吉)	新文典別記上級用	38
(34)	1936	아마다 요시오(山田孝雄)	日本文法學概論	39
(35)	1940	도키에다 모토키(時枝誠記)	國語學史	—

(36)	1941	도키에다 모토키(時枝誠記)	國語學原論	41
(37)	1942	후쿠이 규조(福井久藏)	國語學史	— 42

아울러 일본 문법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서양 문법과의 비교, 대조 및 주요 문법가들의 이론, 업적 및 일본국어학사의 흐름 등에 대한 담론을 담고는 있으나 저자 본인의 품사관이 제시되어있지 않은 문법서는 상기 <표2> 속에서 하이픈(‘-’)으로 표시하였다. 이번 조사 자료에서는 (20), (23), (31), (35), (37)의 5종이 해당되었다.

3. 현대 일본 학교문법의 성립과 일본 문법서

현대 일본 학교문법의 체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림1>로 제시한 현행 일본 학교문법의 품사 분류표이다.



<그림1> 현행 일본 학교문법 품사 분류표⁴⁾

이를 보면 먼저 단어를 자립어와 부속어로 구분하고 이를 활용의 유무에 따라 用言과 體言으로 나누어 형태적인 특성과 수식 단위에 따라 크게 ① 자립⁵⁾과 부속, ② 주술 및 수식 관계, ③ 개별 품사 종류의 세 가지 축으로 10품사 체계인 것을 볼 수 있다.

2) 'DB順番'은 <근현대 한국어 문법 형성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순번이다. 현재 'DB 구축 과정', '실제 자료 조사 결과', '관련 연구' 구성으로 공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있다.

3) 『言海』, 『大言海』 卷末掲載 및 『日本文典』 摘録 버전.

4) 현대 일본 학교문법 품사 분류표 출처는 <http://www.kokugobunpou.com/>이며, 박스 분류는 필자.

5) 橋本는 '독립하는 말(獨立する語)'이라고 하였다.

3.1 體·用 기반 문법서

일본어 품사 분류 체계의 초기 개념은 ‘體·用’ 이전에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이하 荻生)가 1714년 『訓譯示蒙』⁶⁾에서 시도한 ‘正·助’라고 할 수 있다. 荻生은 단어를 ‘正’과 ‘助’로 2분류하고 ‘正’을 다시 ‘實’과 ‘虛’로 나누어 각각 ‘體·用’, ‘動·靜’과 같이 체계화하였다. 이는 일본 국학문법의 ‘體·用’ 2분류 및 ‘體·用·辭’ 3분류에 대한 기틀이 되었다.

〈표3〉 荻生の 분류 체계

大分類	中分類	細分類	領域	‘體·用’으로의 도입
正	實	體	天·地·草·木	體
		用	手·足·枝·葉	
	虛	動	喜·怒·走·歌	用
		靜	大·小·清·濁	
助		之·乎·者·也	辭	

이후 일본어의 단어를 본격적으로 ‘體·用’의 시각으로 본 것은 에도(江戸, 이하 江戸) 중기인 1767년 후지타니 나리아키라(富士谷成章, 이하 富士谷)에 의한다. 富士谷는 일본어 품사 분류 체계를 ‘名(な), 裝(よそい), 挿頭(かざし), 脚結(あゆひ)’의 4종으로 구분하였는데, ‘名’는 ‘體言’, ‘裝’는 ‘用言’의 기원이 되었으며, ‘挿頭’는 ‘名詞’, ‘代名詞’, ‘副詞’, ‘接續詞’, ‘感動詞’, ‘接頭辭’, ‘脚結’는 ‘助動詞’, ‘助詞’, ‘接尾辭’에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山田(1936: 49)에서는 이를 ‘體言·用言·르爾乎波’ 체계의 첫 시도로 의의를 두었다.

富士谷에 이은 스즈키 아키라(鈴木 朗, 이하 鈴木) 역시 1825년 그의 『言語四種論』에서 품사 체계를 ‘體の詞’, ‘形狀の詞’, ‘作用の詞’, ‘テニオハ’로 구분하며 富士谷의 품사관을 계승하였는데, ‘テニオハ’는 1889년 大槻가 ‘助動詞’를 독립 품사로 인정하기 이전까지 일반적으로 ‘助詞’와 ‘助動詞’를 포함하는 전통적인 국학류 문법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도조 기문(東條義門, 이하 東條)이 富士谷와 鈴木의 4분류에 대한 ‘體’, ‘用’의 2분류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1847년 도가시 히로카게(富樫廣蔭, 이하 富樫)가 『詞の玉橋』에서 이른바 ‘テニオハ’의 처리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며 주장한 ‘言(コト: 名詞), ‘詞(ことば: 用言), ‘辭(テニオハ: 助動詞, 助詞)’의 3분류가 국학류—또는 구파(舊派)—문법학자들에게 널리 수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일본 국어학사상에서는 1877년 호리 히데나리(堀 秀成, 이하 堀)가 『日本語學楷梯』를 통해 이 3분류를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유명하며, 1885년 곤다 나오키(権田直助)가 『語學自在』에서 ‘體言’, ‘用言’, ‘助辭’와 같이 확립시킨 데 이어서 大槻와 맥을 함께 하는 ‘절충파’에도 흡수되었다는 것이 일본 국어학사에서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體·用 기반의 일본어 품사 분류 문법서는 1847년 富樫의 이후로 〈표1〉의 No. 기준 (6), (7), (8), (9), (22)의 5종이다.

우선 (6)은 體言, 活(用)言, 後置詞의 3분류이며, 體言에 해당하는 품사를 不動詞, 活(用)言에 해당하는 품사를 動詞, 形容詞로 보았다. 개별 품사로는 副詞만을 뺀 가운데 後置詞에 대하여 ‘てにをはことば’라고

6) 1714년 원판의 입수 문제로 인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다카하시 헤이자부로(高橋平三郎)가 1881년에 교정한 ‘校訂, 建’과 ‘校訂, 坤’ 두 종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함으로서 1800년대 초기 서양 문법 도입 시에서 나타난 ‘前置詞(preposition)’와의 대립 개념이 아닌 ‘助詞’와 ‘助動詞’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7)은 ‘體言’, ‘用言’, ‘接辭’의 3분류로 나타났으며, ‘體言’은 ‘實體言’, ‘虛體言’, ‘假體言’, ‘代名言’, ‘用言’은 ‘作用言’, ‘活辭’, ‘形狀言’을 세부 품사로 설정한 7품사 체계였다. ‘助動詞’를 ‘活辭’, ‘助詞’를 ‘接辭’로 설정한 것 또한 전통적인 ‘テニオハ’ 분류에 대한 차별화라는 것이 필자의 관견이다.

(8) 역시 3분류 체계로 구성을 보면 ‘體言’, ‘用言’, ‘助辭’와 같다. 세부 품사는 ‘體言’을 ‘有形體言’, ‘無形體言’, ‘假體言’, ‘轉用體言’, ‘合體言’, ‘屬體言’과 같이 가장 자세하게 분류해 놓았으며, ‘用言’은 ‘作用言’, ‘形狀言’, ‘助辭’는 ‘體辭’, ‘用辭’로 나누었다. 특히 (8)에서는 ‘助辭’에 대하여 ‘(사(詞)에 붙어서 그 움직임(활용)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를 통하여 ‘辭’가 부속 성분의 영역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 江戸기와 明治기에 걸쳐 이루어졌던 ‘詞’와 ‘辭’의 혼용에 대해 일본 문법학계의 정리가 마무리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9)는 일본어 품사를 ‘uninflected’와 ‘inflected’로 구분하고 세부 품사 항목으로 각각 ‘noun’, ‘pronoun’, ‘numeral’, ‘postposition’과 ‘adjective’, ‘verb’를 설정한 2분류 6품사의 모습을 띄고 있다. 그러나 저자인 바실 홀 체임벌린(Basil Hall Chamberlain, 이하 Chamberlain)이 한 해 뒤에 간행한 『日本口語文典』에서는 ‘adverb’, ‘interjection’, ‘conjunction’ 세 가지 품사가 등장하고 있으며, 분류 형식 역시 개별 품사 형식을 띄고 있다.

(22)는 앞서 언급한 東條의 관점이 반영된 가운데 각각 ‘言’과 ‘辭’의 2분류 형식을 띄었다. ‘言’의 범주에서 ‘體言’, ‘用言’을 처리하였고 ‘辭’에서는 ‘靜辭’, ‘動辭’를 설정하여 富士谷의 ‘挿頭’에 속하는 품사 가운데 ‘副詞, 接續詞, 感動詞’의 처리에 대한 하나의 방안이 도모되었음을 읽을 수 있었다. <표4>는 지금까지의 기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4> 體·用 기반 국학류 문법서와 품사 체계

No.	年度	書名	品詞名	體系
(6)	1877	雅俗文法 (里見 義)	體言: 不動詞 活(用)言: 動詞, 形容詞 後置詞 개별 품사: 副詞	3분류 4품사
(7)	1878	初學日本文典 (物集高見)	體言: 實體言, 虛體言, 假體言, 代名言 用言: 作用言, 活辭, 形狀言 接辭	3분류 7품사
(8)	1885	語學自在 (權田直助)	體言: 有形體言, 無形體言, 假體言, 轉用體言, 合體言, 屬體言 用言: 作用言, 形狀言 助辭: 體言, 用言	3분류 10언
(9)	1887	日本小文典 (Chamberlain)	uninflected: noun, pronoun, numeral, postposition inflected: adjective, verb	2분류 ⁸⁾ 6품사
(22)	1907	新式日本文典原理 (岡澤鉦次郎)	言: 體言, 用言 辭: 靜辭, 動辭	2분류 2언2사

7) 원문은 다음과 같다.

助辭ハ、詞に附きて、其の用きを助くるものを言ふ。(p.7)

이번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體·用이 주요 기반을 이루는 국학류 문법서라고 하더라도 그 분류에 있어서는 ‘體’와 ‘用’ 및 ‘言’과 ‘辭’의 관점이 공존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江戸기 국학류 문법서의 조사를 더하여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으나 적어도 본고를 통해 본 국학류 품사 분류의 관점은 ‘體·用’이라고 하는 ‘활용의 유무’에 따른 입장과 ‘言·辭’라고 하는 자립과 비자립, 즉 ‘성분의 소속’으로 나누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절충식 문법서에서도 유사한 형식으로 반영되고 있었다.

3.2 절충식 문법서

일본 국어학사에서 서양 문법서의 도입과 함께 이에 대한 모방의 첫 시도는 쓰루미네 시게노부(鶴峯戊申)였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후 다나타 요시카도(田中義廉)와 나카네 히로시(中根 淑)를 거쳐 大槻에 이르러 ‘折衷문법’이 확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3.1절에서 언급한 (6), (7), (8), (9), (22)의 5종을 제외한 일본어 문법서가 절충식에 해당한다. 이들 문법서를 관찰하며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富士谷의 ‘挿頭’에 속하는 품사 중 특히 ‘副詞, 接續詞, 感動詞, 接頭辭’의 처리를 포함하여 국학류 문법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고심의 흔적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품사 분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江戸 초기 네덜란드어 및 영어 문법서의 번역 과정에서 보인 개별 품사 분류 형식을 전면에 취한 것과 體·用을 기반으로 개별 품사들을 편입한 형식을 취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로는 (1), (2), (3), (4), (5), (10), (11), (12), (16), (19), (21), (25), (28), (29), (30)이 있으며, 후자에는 (13), (14), (15), (17), (18), (24), (26), (27), (32), (33), (34), (36)을 들 수 있다.

〈표5〉 절충식 문법서와 품사 체계

No.	年度	書名	品詞名	體系
(1)	1873	皇國文典初學 (黒川真頼)	名詞, 數量詞, 代名詞, 形容詞, 動詞, 助詞, 副詞, 接續詞, 嗟歎詞	9품사
(2)	1874	小學日本文典 (田中義廉)	名詞, 形容詞, 代名詞, 動詞, 副詞, 接續詞, 感詞	7품사
(3)	1876	日本文典 (中根 淑)	名詞, 代名詞, 形容詞, 動詞, 副詞, 後詞, 接續詞, 感歎詞, 冠詞	9품사
(4)	1876	日本小文典 (中根 淑)	名詞, 代名詞, 形容詞, 動詞, 副詞, 後詞, 接續詞, 感歎詞, 冠詞	9품사
(5)	1877	日本小文典 (田中義廉)	名詞, 形容詞, 代名詞, 動詞, 副詞, 接續詞, 後詞, 感歎詞	8품사
(10)	1888	日本口語文典 (Chamberlain)	noun, pronoun, postposition, numeral, adjective, verb, adverb, interjection, conjunction	9품사
(11)	1889 1890	語法指南 (大槻文彦)	名詞, 動詞, 形容詞, 助動詞, 副詞, 接續詞, 天爾遠波, 感動詞	8품사
(12)	1891	日本中文典 (高津楸三郎)	動詞, 形容詞, 名詞, 代名詞, 副詞, 接續詞, 感動詞, 關係詞, 補助詞, 附加詞	10품사
(13)	1891	日本新文典	主辭	2분류 10품사

8)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words of which the Japanese language is composed fall into two great groups, the uninflected and the inflected.(p.7). 밑줄은 필자, 이하 동일.

		(岡倉由三郎)	-働かぬもの: 名詞, 指詞, 數詞, 副詞, 接詞, 感詞 -働くもの: 動作詞, 形狀詞 助辭 -働かぬもの: 助詞 -働くもの: 助動詞	
(14)	1897	廣日本文典 (大槻文彦)	體言: 名詞 用言: 動詞 助辭: 助動詞, 天爾遠波 개별 품사: 形容詞, 副詞, 接續詞, 感動詞	3분류 8품사
(15)	1897	廣日本文典別記 (大槻文彦)	體言: 名詞 用言: 動詞 助辭: 助動詞, 天爾遠波 개별 품사: 形容詞, 副詞, 接續詞, 感動詞	3분류 8품사
(16)	1898	中等國文典 (三土忠造)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助動詞, 副詞, 接續詞, 助詞, 感動詞	9품사
(17)	1901	新撰日本文典 (岡倉由三郎)	軀言 用言: 動詞, 形容詞 助辭 개별 품사: 接續詞, 感動詞	3분류 4품사
(18)	1901	日本俗語文典 (松下大三郎)	相關詞 -主要詞 體詞: 名詞, 代名詞 用詞: 動詞, 形狀詞 -關係詞 後置詞, 接用詞, 接續詞 獨立詞 間投詞	6분류 8품사
(19)	1901	新式日本文典初步 (松平円次郎)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後置詞, 接續詞, 感歎詞	8품사
(21)	1903	日本文法論 (金澤庄三郎)	名詞, 代名詞, 數詞, 動詞, 形容詞, 助動詞, 副詞, 接續詞, 弓爾乎波, 感動詞	10품사
(24)	1908	日本文法論 (山田孝雄)	體言: 名詞, 代名詞 用言: 動詞, 形容詞 개별 독립 품사: 副詞, 助詞, 接辭	2분류 7품사
(25)	1908	高等日本文法 (三矢重松)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助動詞, 接續詞, 感動詞, て におは	8품사
(26)	1922	日本口語法講義 (山田孝雄)	體言: 名詞, 代名詞, 數詞 用言: 形容詞, 動詞, 存在詞, 助動詞 副詞: 副詞, 接續詞, 感動詞 助詞: 助詞	4분류 11품사
(27)	1922	日本文法講義 (山田孝雄)	體言: 名詞, 代名詞, 數詞 用言: 形容詞, 動詞, 存在詞, 助動詞	4분류 11품사

			副詞: 副詞, 接續詞, 感動詞 助詞: 助詞	
(28)	1924	標準日本文法 (松下大三郎)	感動詞, 名詞(代名詞 포함), 動詞, 形容詞, 副詞(接續詞 포함)	7품사
(29)	1928	改選標準日本文法 (松下大三郎)	名詞(代名詞 포함), 動詞(形容詞 포함), 副體詞, 副詞(接續詞 포함), 感動詞	8품사
(30)	1930	標準日本口語法 (松下大三郎)	名詞(代名詞 포함), 動詞(形容詞 포함), 副詞(接續詞 포함), 副體詞, 感動詞	8품사
(32)	1934	國語法要說 (橋本進吉)	用言 體言 副詞, 接續詞, 感動詞	2분류 3품사
(33)	1935	新文典別記上級用 (橋本進吉)	體言: 名詞, 代名詞 用言: 動詞, 形容詞 副詞, 接續詞, 感動詞, 助動詞, 助詞	2분류 9품사
(34)	1936	日本文法學概論 (山田孝雄)	體言: 名詞, 代名詞, 數詞 用言: 形容詞, 動詞, 存在詞 複語尾, 副詞, 助詞	2분류 9품사
(36)	1941	國語學原論 (時枝誠記)	詞 -體言 -用言: 動詞, 形容詞 -개별 품사: 代名詞, 連體詞, 副詞 辭 -接續詞, 感動詞, 陳述副詞, 助動詞, 助詞	2분류 11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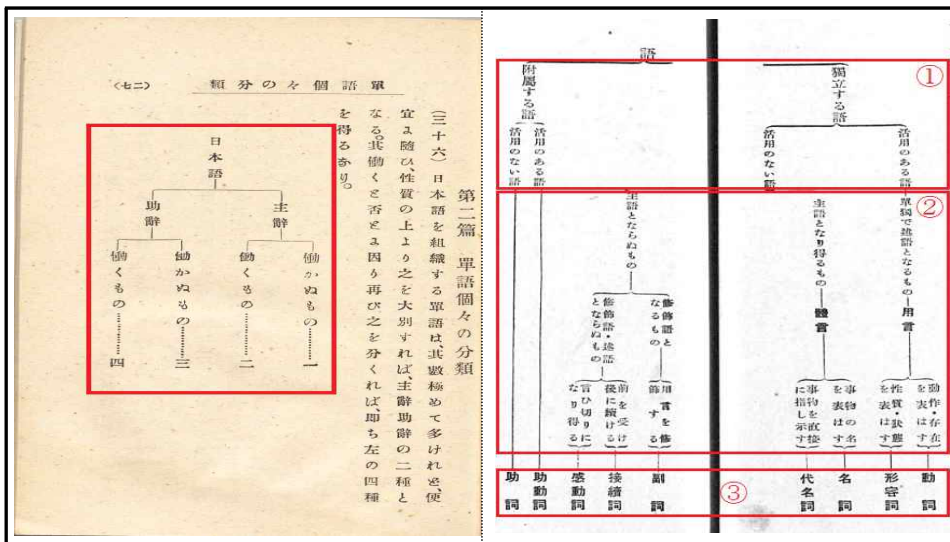
한편,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사항은 동일한 문법가라 하더라도 품사 분류에 대해서 입장 및 체계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이다. 일본어의 글말과 입말의 경계를 보이려는 의도가 없지 않은 Chamberlain의 (9)와 (10)은 논외로 하더라도 3.2절에서 보일 (13), (17)과 (27), (34) 및 (32), (33)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또렷하였다. 부연하면, 橋本은 (32)에서는 ‘體用’ 체계 기반으로 이에 속하지 않은 개별 품사는 ‘副詞’, ‘接續詞’, ‘感動詞’ 뿐이었으나 (33)에서는 ‘助動詞’와 ‘助詞’가 추가되어있다. 이어서 (13), (17)과 (27), (34)의 경우는 앞서 간행된 문법서에서의 입장과는 달리 품사 분류 체계가 간략하게 변형된 모습이다. 특히 (13)의 경우는 전통적인 ‘詞’와 ‘辭’의 개념이 바뀌어있으나 (17)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詞’와 ‘辭’의 입장을 유지하게 된 경향을 보인다.

(27) 또한 山田가 같은 해 간행한 (26)과 함께 일본어 품사를 4분류의 11품사로 구성한 것을 볼 수 있으나 (34)에서는 (24)와 같은 방향으로 변모한 형태를 알 수 있다. 단, (34)에서는 ‘接續詞’와 ‘感動詞’를 각각 ‘接續副詞’와 ‘感動副詞’와 같이 ‘副詞’의 범위로 처리하였으며, 山田 자신이 기존에 인정하고 있었던 ‘助動詞’ 또한 ‘複語尾’로 재규정하며 ‘脚結’에 가까운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추후 山田가 ‘複語尾’를 설정한 당위성과 富士谷의 ‘脚結論’에 집중하여 다시 다루어 보고자 한다.

3.3 일본 학교문법 품사 분류의 원형

현행 일본 학교문법의 품사 분류 방식은 <그림1>에서와 같이 이른바 크로스 분류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크로스 분류에 대해 矢澤(2016: 217)에서는 일본어 문전에서 크로스 분류 방식이 채용되기 시작한 것은 明治 20년대(1890년대)이며, '자립·부속', '비활용·활용'의 크로스 분류를 가장 빨리 적용한 것은 이번 연구 자료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891년 岡倉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 외에도 1892년 오미야 소사 호시노 사부로(大宮宗司·星野三郎) 및 1891년, 1895년에 세키네 마사나오(関根正直)가 적용한 크로스 분류를 제시하여 각각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러나 크로스 분류의 등장은 그 시기를 1870년대로 조금 앞당겨서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법서들의 상호 영향관계를 파악해 보기 위하여 이번 조사 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몇 가지 문법서를 살펴본 결과, 1872년 黒川の 『日本小文典』에서 '名詞'와 '動詞', '助詞'를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수직 형태의 크로스 분류가 나타나 있었으며, 3.1절에서 언급한 1877년 堀의 『日本語學階梯』에서도 '言·詞·辭'에 대한 수직 형태의 크로스 분류가 제시되어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3)의 크로스 분류 관점인 '자립·부속', '비활용·활용'은 이후 橋本에 의해 특히 1938년과 1939년의 『改制新文典別記口語篇』과 『改制新文典別記文語篇』를 통해 발전되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원형은 품사 분류의 체계를 '體言(名詞, 代名詞)'과 '用言(動詞, 形容詞)' 및 '副詞, 接續詞, 感動詞, 助動詞, 助詞'와 같은 2분류 9품사 형태로 잡고 활용에 따른 역할과 기능에 따라 '活用語'와 '活用連語', '連體修飾語', '補助用言'을 제시한 그의 1935년 『新文典別記上級用』(33)⁹⁾인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2> 岡倉(1891)의 크로스 분류(左)와 橋本(1938.1939)의 크로스 분류(右)

9) 원문은 다음과 같다.

活用語: 活用ある語

活用連語: 助動詞が他の語に附いたもの。

連體修飾語: 普通の副詞的修飾語に補語·客語をも併せたもの。

補助用言: 獨立し得べき用言が、他の語に付屬的の意味を添へる爲に用ひられたもの。補助動詞と補助形容詞がある。(pp.2-3)

4. 맺음말

지금까지 근현대기 일본어 문법서에 나타난 품사명과 분류 체계를 통하여 현행 일본 학교문법의 성립 과정을 살펴보았다.

고찰의 결과 일본 학교문법의 품사 분류 체계는 국학과 양학류 문법의 절충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자료를 토대로 일본 국어학사의 관점에서 일본 학교문법 품사 분류 체계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를 관통하고 있는 주요 문법서들의 품사 체계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크로스 분류 형식의 제시는 1700년대부터 출현하였으며, ‘體·用’과 ‘言·辭’의 관점이 공존한 가운데 橋本에 의해 현재의 원형이 확립되었으나 이에 대한 초기적인 개념은 절충식 문법서를 통해 이르게는 1891년 岡倉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현재까지 연구된 선학의 성과에 의탁하여 문법서에 나타난 품사체계를 중심으로 기술하며 당시의 일본 문법서가 현대 일본 학교 문법 성립과 확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논의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적지 않다. 더하여 논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현대 일본 학교문법의 주된 논란 가운데 하나인 ‘형태 중심의 체계’와 이와 관련하여 ‘단어의 의미적 영역에 대한 도모가 부족하다’는 비판 등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 역시 고찰 범위에 미처 넣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논의의 관점을 문법교육사로 옮겨 한국 학교문법 확립에 기여한 문법관과 문법가의 입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현대 학교문법 성립 과정과 비교, 대조함으로써 한일 양국 학교문법의 체계와 이론적 상관관계를 구명하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복수(1979) 『國語文法史研究』 형설출판사 pp.51-79, pp.391-401
- 고경민(2011) 「근대계몽기 한국어 학습서의 문법기술에 대한 고찰」 『한국문법교육학회』 Vol.2011-2 pp.25-35
- 고영근(1985) 『國語學研究史 : 흐름과 動向』 學研社 p.11
- 고영근 외(1992) 『國語學研究百年史 IV 參考文獻 若泉 金敏洙教授論著目錄 國語學史 年表 總索引』 一潮閣 pp.895-1120
- 김민수(1975) 『初期國語文典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
- _____(1978) 「初期國語文法과 日本洋學」 『人文論集』 23 pp.24-36
- 김민수 · 하동호 · 고영근 공편(2008) 『歷代韓國文法大系』 總索引 박이정 p.17
- 김민수(2008) 「1세기 반에 걸친 韓國文法研究史」 『歷代韓國文法大系』 제2관 별책 박이정 pp.8-11
- 関丙燦(1998) 「江戸期日本における韓語」 『일본학보』 40 pp.29-44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엮음(2016) 『근대기 동아시아의 언어교섭』 한국문화사 pp.200-222
- 오오이 히데아키 · 서상규(2015) 「일본의 ‘문법(文法)’과 문법 용어의 형성-근대 한일 문법 교섭사 규명을 위한 기초 연구-」 『한글』 307 pp.257-260
- 윤영민(2015) 「개화기 한일 양국어 학습서의 특징 연구-문법 관련 기술 양상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23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pp.181-186
- _____(2016) 「근현대기 일본문법서에 나타난 품사 분류 체계와 품사명의 추이에 대하여-에도와 메이지기 자료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6 한민족문화학회 pp.331-360
- 윤영민 · 서상규(2016) 「근현대기 일본문법서에 나타난 ‘문법’의 쓰임과 개념의 추이」 『언어 사실과 관점』 3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pp.36-38

- 金水 敏・高山善行・衣畑知秀・岡崎友子(2011) 『文法史』岩波書店 pp.4-250
- 国語学会(1980) 『国語学大辞典』東京堂出版 pp.949-1045
- 齐木美知世・鷺尾龍一(2012) 『日本文法の系譜学-国語学史と言語学史の接点-』開拓社 pp.213-224
- 山東 功(1999) 「中根淑『日本文典』について」 『阪大日本語研究』11. 大阪大学 pp.60-79
- _____ (2002) 『明治前期日本文典の研究』和泉書院 pp.123-129
- 蓮沼啓介(2009) 「西周の日本語論」 『神戸法学年報』25 神戸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pp.133-178
- 鈴木 泰(2013) 「橋本進吉の講義「国語法概論」の筆記(2)」 『専修大学人文科学研究月報』専修大学人文科学研究科 pp.1-55
- 仁田義雄(2005) 『ある近代日本文法研究史』和泉書院 pp.99-231, pp.245-250
- 服部 隆(1986) 「明治前期における国文典の問題：西洋文典からの影響を中心に」 『上智大学國文学論集』19 pp.33-64
- _____ (1988) 「明治後期における国文典の問題：品詞分類における伝統的国語研究と西洋文典の利用」 『上智大学國文学論集』21 pp.153-179
- 松村明編(1971) 『日本文法大辞典』明治書院. pp.1011-1054
- 森田真吾(2000) 「明治20年代における文法教授の定着：大槻文彦『語法指南』の再評価」 『国語科教育』47 pp.112-105
- _____ (2008) 「明治期における文法教科書の中の「国語」に関する考察-文法教育と「國語意識」の涵養との接点」 『千葉大学教育学部研究紀要』56 pp.430-422

인터넷 자료

<http://www.kokugobunpou.com/>(검색일: 2017.6.2)

〈 要 旨 〉

日本学校文法の成立過程考察 -品詞名と分類の体系を中心に-

本稿の目的は現代韓国語文法の体系化の中で散見される日本語文法書との言語的な交渉関係を究明するための研究の一つとして、まずは近現代き日本文法書に現れた品詞名や分類体系に着目し、現代日本学校文法の成立過程を探ってみることである。

日本の文法教育は1872年学制公布以来、1910年代の本格的な言文一致運動が台頭される前から「口語文法」と「文語文法」として分られ行われてきた。これに加えて橋本の文法観は1890年代大槻文彦が立て通した「國學」と「洋學」の折衷的立場が模索されており、このような観点は現代日本文法を率いた松下・山田・時枝文法を通じて公有されてきた。

今回の考察は明治・大正・昭和期といった19世紀から20世紀に掛けて刊行された日本文法書に着目して日本語の品詞名と分類様相の流れを観察する一方、これらの文法書が日本学校文法の確立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たのかを考えてみた。その結果、日本学校文法の品詞クリス分類形式は1700年代から出現しており、「體・用」、「言・辭」の観点が両立していた中、橋本によって原形が提示されたのではあるが、このような橋本の品詞分類体系に対する初期の概念や形はいわゆる折衷式文法書である岡倉由三郎の1891年『日本新文典』で既に確認できることが分かった。

論文分野：日本語史

キーワード：日本語文法書、日本学校文法、個別品詞名称、品詞体系、折衷文法

■ 윤영민 (尹榮珉)

연세대학교 HK연구교수, 일본어사
marchen52@naver.com

- 投稿日： 2017년 9월 30일
- 審査開始： 2017년 10월 22일
- 審査完了： 2017년 11월 27일
- 掲載確定： 2017년 11월 24일